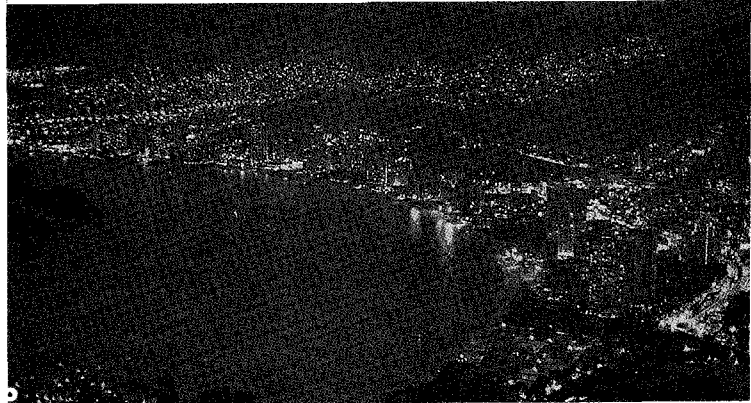


人類의 장래위해 寄與많은 WEC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해 「에너지」는 밤이고 낮이고 需要가 줄지 않는다/南멕시코 太平洋연안 「아칼폴코」市の 夜景〉

先進國들- 綜合商社, 重工業, 건설회사등
에너지間接기관 적극參與, 利益圖謀나서

이번 1992년의 제15차 WEC총회 「마드리드」大會는 총99개 회원국 가운데 94개국에서 약 5000명의 代表가 참석하여 “Energy and Life”라는 주제를 놓고 스페인 마드리드의 유서깊은 「콩그레스 홀」에서 본회의에서 만도 9月20日~25일까지 6일동안 진지한 논의와 협력의 마당을 마련한 총일정으로 보아 15일동안 명실상부한 「에너지 UN총회」다운 국제적 축전이였다. 그러면서도 「리우」회의보다 알려진게 없다는 WEC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世〉

美·日·유럽 등 先進國들은 政府, 에너지 相關기관, 企業이 共助体制을 이루어 WEC 총회를 적극 活用함으로써 그들의 國益을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문제, 그리고 經濟개발의 지속성으로 보아 企業進出의 좋은 계기가 되는 이런 대규모 국제적 모임을 놓치지 않는다.

“별로 알려지게 없다” 뒤늦게 反省



〈WEC의 要人들/左부터 Lindsay사무총장, 아거한센 ETW委員長, Calleja 조직위원, Gomez조직委員長, Baker 企劃委員長, Ott EA의장〉

대회의 준비, 진행등 대체로 무난

이번 15차 총회는 그 규모면에서 제13차 칸느총회(1986), 제14차 몬트리올총회(1989)와 비슷한 5000명의 학자, 정치가, 실업가, 에너지기관 종사자등 전문가와 에너지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큰 규모의 국제 대회였으며 지난 6월 地球Summit-리우회의가 열리고 난 뒤활기찬 분위기는 어느대회보다 진지했다.

개최국인 스페인은 이 대회의 개최를 카를로스國王에게 맡기고 폐회를 펠리페王世子에게 맡기는 등 최대의 祝典으로 이끌기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기조연설에도 중량급人士들이 나서는등 관심을 모은 대회였다.

Technical Session, Round Table Session등 WEC총회의 하이라이트격인 본회의의 진행상황도 무난하였고 기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기조연설, 논문발표, 패널디스커션, Working Group 회의 등 짜임이 다양하였고 이를 WEC가 지난 3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Energy for Tomorrow's World Commission (ETWC)의 연구결과에 접목시켜 보완하려는 노력이 회의의 주도적 흐름이었던 것도 호감을 샀다.

우리나라에 들러 지난 7월 21일 여의

도 中小企業中央會강당에서 WEC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스웨덴 「알빈슨」교수가 “폐기물 관리에 따르는 환경과 에너지 측면에서 문제점 검토” 주제로 강연한 내용의 논문은 「ETW 위원회」 종합보고서의 보완자료로 제출된바 있는데 올해안으로 WEC발행자료로 발간되어 나올 예정이다. (협의회보24호24면 참조)

大會進行에 미숙한 점 쓰이기도

그러나 바르셀로나 올림픽 진행에서도 상당한 불편이 있었듯이 이번 WEC 마드리드대회에서도 미숙한 점이 더러 눈에 띄었다.

공항에서의 안내, 총회장의 준비상황, 편의시설이용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각국대표들의 불평을 샀다. 총회전 9월17일~18일에 열린 집행이사회(EA)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씩 앞당겨 마드리드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낮은 공항에서 안내를 전혀 받을 수 없었고 그이후의 총회 참가자들에 대한 안내도 형식적이어서 모두 불편함을 호소했다.

총회진행은 국제행사 전문용역회사(SIASA)가 맡아 했으나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그런지 주도면밀하지 못하고 엉성한테가 여기저기 눈에 띄었으며 참가자들은 호텔예약금을 총회등록신청

시 (총회 석달전)모두 지불하였기 때문에 예약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도착해보니 지정된 방이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호텔측은 사전예약 확인이 없어 다른 고객에게 貸室했노라고 시침을 때어 참가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공중전화, Fax 등 통신시설의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여 본국과의 연락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호텔은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 등 엉성함을 느꼈다.

참가자에 대한 등록일자를 준수치 않는단던가 대회장 출입시 참가자 명찰을 모두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검문검색이 심하여 매번 호주머니 소지품, 가방등을 열어보여야 하는 번거로움등도 있었다.

그밖에 물가가 기대이상으로 비싸서 불편을 겪은 일이 많았다.

스페인의 風光과 유서깊은 문화유산이 이러한 국제회의에서의 상식이하의 서비스를 받고 느낀 불쾌감을 얼마쯤 상쇄해 주기는 했으나 인짤은 이미지가 지위지려면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며 국제회의의 준비는 그만큼 주도면밀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자각과 함께 우리에게도 他山之石이 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와 大氣汚染 맞물려 있으나

환경 保全하며 에너지 계속 공급 가능하다

国益위해 WEC活用하는 先進國들

여러 국제적 모임이 있지만 WEC는 에너지資源을 다루는 국제기구로서 회원 국수는 99개국이나 된다.

지금 바야흐로 에너지문제는 범지구 적인 문제로 부상하였고 앞으로 에너지 및 환경산업은 크게 각광받는 사업으로 발전할 것은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이런 상황전개를 내다보고 있는 선진 국들은 WEC총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선 파견하는 대표단규모도 크고 회의장에서 그들의 논리와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울뿐 아니라 특기할만한 것은 에너지관련 기업들이 많이 참석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관련 기업인 대거 참여 : 이들 대기업의 경영진들은 각국대표들에게 리셉션이나 만찬회를 배풀고 기업홍보에 열을 올린다. 이번 마드리드대회에서도 이런 풍습은 여느 대회와 마찬가지로였는데 여러나라의 에너지관련 人士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 이용하는 것이다.

WEC총회 유치경쟁 치열 : 이번 WEC총회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98년도총회(17차)」유치를 위해 상당수의 회원국이 치열한 유치활동을 벌였다. 16차 총회는 이미 東京으로 결정되어 있고 이번 15차총회가 유럽에서 열렸기 때문에 지역 안배의 명분과 「멕시코」와 공동개최의 조건으로 北·中·南美勢의 협조를 얻고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의 동조로

〈제15차 WEC 총회 본회의 광경 (9월 20일 스페인 마드리드)〉



17차 총회(1998)가 미국으로 선정되긴 했으나 유치경쟁에서 「네덜란드」를 위시한 북유럽 5개국공동은 내심 '98년이 안될 경우 2001년의 개최유치를 목표로 마지막까지 경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약 100개국에서 5천명의 에너지계 대표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를 열다보면 그만큼 국위선양(國威宣揚)도 필티고 경제적 부수효과나 장래의 추가적 효과도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번 총회(16차/1995)의 개최국인 일본은 마드리드에 30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우리나라 25명) 총회본회의는 물론 산업시찰 및 각종의 사회·문화행사까지 빠짐없이 고루 참여시켜 면밀히 상황기록을 하는등 사전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런 국제 무대에서 경제대국을 과시해 보려는 일면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현재 일고 있는 신국제질서의 형성기운에 고무되어 국력에 걸맞은 리더의 一役을 맡고자하는 그들 政·財界의 열망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유럽권의 인간힘 : 이번 총회에서는 옛소련의 해체로 형성된 15개 독립국가 중 7개국이 새로이 가입되었다. 그런데 이들 국가대표들은 자기들의 정통성(正

統性)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비장한 어조로 신규(新規)가입이 아니고 재가입(再加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다시 보아야 할 WEC

위에서 적은 여러 대목들은 여러나라들이 WEC와 유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또한 3년마다 열리는 WEC총회와 같은 국제대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면 WEC가 뛰하는 곳이기에 이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WEC 1924년 설립 : WEC는 약 70년전 英國런던에서 「다니엘 던립」 卿의 제창으로 세계동력회의(World Power Conference/WPC)의 이름으로 설립되어 그동안 명칭도 World Energy Council(WEC)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中央事務局은 역시 런던에 있다.

설립목적 및 사업 : 인류의 최대편익(便益)을 위한 에너지(Energy)資源의 개발촉진, 平和的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WEC는 ① 잠재적 에너지자원의 개발, 생산, 수송, 變形 및 다각적인 活用 연구 ②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관련

문제검토 ③ 에너지 공급과 이용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 연구 ④ 에너지 관련 자료수집 및 발간 ⑤ 회원국간의 자료교환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⑥ WEC 집행이사회(EA) 및 총회 개최-매년 및 매3년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WEC는 각국국내위원회, 집행이사회, 총회, 행정·기획·연구분야의 상임위원회, 8개 연구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고, UN, UNESCO, IBRD, IAEA, OPEC 등 14개주요국제기구와 연계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재 ① 총재 Dr. M. Gomez de Pablos(스페인) ② WEC/EA의장 Dr. G. Ott(독일) ③ WEC/EA 부의장 Mr. W. J. Bowen(美), Dr. D. M. Kroko(코트디부아르), Mr. 호리이찌로(堀井一郎/일본) ④ 사무총장 Mr. I. D. Lindsay 등 에너지계의 저명한 사가 포진하고 있으며 그밖에 WEC의 여러갈래 기구에 저명한 學界, 研究界, 產業界, 政府기관人士들이 參與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9년 10월 WEC에 가입했으며, 현재 ① WEC/EA 명예부의장 鄭根謨 에너지 공학회장 ② 常任연구위원회 위원 李會晟 에너지經濟연구원 院長 ③ 常任기획위원회 산하 火電 가동률 위원회 위원 李相榮 韓電처장, 국가 에너지 統計자료 위원회 위원 金鳳鎭 에經研 통계조사실장 ④ ETW 위원회 이사 鄭根謨 에너지공학회장, 李鳳瑞 전 동자부 장관, ETW 지역위원 李會晟 에經研 院長 ⑤ 新再生 에너지위원회 위원 吳正茂 에너지技術연구소 소장 ⑥ 開途國 에너지 위원회 위원 金相演 에너지協고문, 林炳宰 에經研 計量分析연구팀장등이 WEC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WEC는 이와같이 범국제적 성격을 띤 오랜 전통을 지닌 국제기구이다. 앞으로 에너지의 중

요성이 더해질수록 WEC의 사업과 활동도 더욱 중요성을 띠워갈 것이다.

WEC가 현재로서는 정치, 경제 또는 환경분야등의 다른 국제기구보다 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에너지와 환경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고 WEC가 에너지分野의 대표적 국제기구라는 점을 이들은 놓치지 않는 것이다.

리우會議 殘響에 가리운 WEC 총회

지난 6월3일~14일까지 12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리우회의/지구서밋)는 매스컴이 連日 대서특필하는 가운데 막을 닫았다. 물론 환경보전문제의 대두로 전환점에 서있는 地球를 구출해야 한다는 인류사(人類史)적 의미가 부여돼 있었고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모여들어 관심을 표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돼 있었기 때문이기는 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인류사적 전개는 연원(淵源)은 만데 있지않고 바로 「에너지」와 「資源」의 過用이 낳은 참담한 결과에서 비롯된다.

현재 環境과 「에너지」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공통의 인식이 확립돼 있다.

「에너지」문제를 범지구적으로 다루고 있는 俗稱 「에너지의 UN총회」(3년마다 열림) - 제15차 WEC 마드리드 총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리우회의의 반정도도 세계의 이목을 끌지 못한채 지난 9월 25일 6일간의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듯 문의가 왔으나 WEC총회의

기사가 단 한줄도 신문에 난 일이 없다.

“人類위한 寄與에도 알려지지 없다” WEC, 弘報의 미숙성 반성

「리우」회의는 지구상 생물권의 보호와 「全人類의 公平化」를 실현하기 위한 이른바 「保續可能한 開發」(Sustainable Development)을 기본이념으로 宣言했고, 이번 WEC 15차총회는 이의 구체적 실현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共有를 확인했다.

사실상 保續可能한 開發은 경제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에너지와 資源의 사용이 전제돼야 하므로 거기에는 환경오염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二律背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우회의는 이것의 성취를 위해서 세찬 인류의 이지적 도전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번 WEC 총회에서도 “Energy and Life”라는 테마에 맞게 保續可能한 開發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人口증가를 억제하여 에너지需要의



우리대표단장 安秉華회장과 鄭根謨박사가 외국수석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企業人 많이 참석 기업이미지 확산위해 노력 아끼지 않아

急増과 자원의 고갈을 막고 ① 에너지 효율向上 ② 클린 에너지개발 촉진 ③ 再生에너지 사용확대 ④ 안전한 原子力 개발 주력등 에너지技術의 획기적향상으로 환경보전과 지구생태계를 보호하며 선·후진국간의 협조로 균형발전을 이루는 이상을 향해 나간다면 미래세계도 「安定的인 成長」, 즉 保續可能한 開發이 가능하다는 것이 15차 WEC 총회의 主調이었다. 물론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훈련, 기술이전등이 강조되었다.

「리우」회의는 두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 세찬 도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고 15차 WEC총회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수 있다는 가능성의 인식을 공유한 것에서 같은 맥락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共通의 主調를 가진 두 국제회의가 한쪽은 세계의 이목을 끌고 다른

로 상징하고 진지한 논의를 거친 다음 합의를 도출하고 앞으로 WEC의 홍보활동을 집행이사회가 강력히 뒷받침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WEC韓國國內委員會도 이제까지 눈을 돌리지 않았던 홍보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홍보강화를 위해 WEC본부와 보조를 맞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WEC에 적극 참여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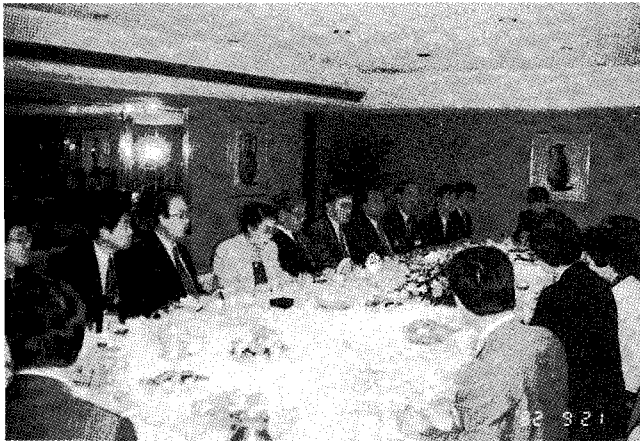
WEC에 대한 우리의 인식정도 : 우리나라가 WEC에 가입한 것은 1969년이 었다. 한국에너지협회의가 설립된 것은

60개회원사를 포용한 WEC국내위원회 및 한국에너지협의회의도 기구의 왜소성, 활동예산의 영세성을 헤어나지 못한채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회원사들의 인식도 담보상태에 있는 채 이러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 어떻게 하는지 살펴야 : 미국, 일본, 영국등 기타 선진국들은 WEC 국내위원회의 회원구성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는 「직접 에너지관련기관」만 에너지협의회의 회원사로 한정돼있으나 이

東京총회('95) 적극참여, 준비서둘러야 經驗則보다 創意的論文 제출돼야



〈우리 대표단이 WEC 총회 개막 다음날 (9월 21日)마드리드 現地에서 조찬 회를 열고 회의의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한쪽은 잠잠했다.

이번 WEC 총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응이 나왔다. WEC가 이룩한 사업내용과 세계적 기여에 대해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못한 것은 홍보활동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반성이었다.

그래서 WEC본부를 중심으로 언론매체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협의 활동을 펴기로 의견을 모았다. 만각(晩覺)이지만 잘된 일이다.

또한 WEC는 내년도(1993) 집행이사회(EA)에 홍보문제를 주요보고 사항으

1987년 9월 우리나라가 WEC집행이사회(EA) 회의를 유치해 개최하면서 그보다 앞서 1985년 12월 韓電이 주축이 되어 국제회의의 준비기구로서 발족한데서 비롯된다.

1987년에 당시 70개 WEC회원국 가운데 44개국에서 565명의 에너지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국제회의는 성황리에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루어졌고 이때 한국에서도 WEC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뒤 열기는 시들어갔고 현재

들 선진국들은 「간접 에너지관련기관」도 모두 망라하고 있다. 국제무역을 하는 綜合商社, 重工業, 우수한 建設會社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물론 직접 에너지관련 기관은 총망라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들이 人力지원, 예산지원 등을 통해 국내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물론 이들이 에너지협의기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3년마다 열리는 WEC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각국의 대표단을 한자리에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WEC는 多에너지(Multi-Energy)國際機構이므로 3년마다 열리는 총회의 규모도 크고 다루는 회의의 내용도 이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까지 미치는 광범위한 테마가 논의된다. 따라서 각국에서 파견하는 참가인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선진국들은 국내위원회 회원사들이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칠리가 없으며 기업체나 관련기관들이 국내위원회와의 유대를 긴밀히 유지하며 WEC의 각종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각국대표

들의 접촉을 넓혀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접 에너지기관은 물론 간접 에너지기관들이 WEC가 이러한 플러스적 효과가 크다는데 눈을 뜨다면 WEC 한국 국내위원회도活性化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事前 준비, 事後 점검 철저해야

우선 WEC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에너지협의회 직원들을 WEC 관련(國際通)으로 만들어야 하고 상응하는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 우선 에

너지협의회가 귀국보고회등이 반드시 몇번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각분야별 전문가가 망라되어 총회의 진행상황, 에너지의 세계적 동향, 우수논문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 재점검하는 회합을 열어 관심을 고조시켜야 한다.

WEC는 수년간 ETW(Energy for Tomorrow's World) 테마로 지칭되는 에너지의 장래문제를 추구해왔으며 이번 총회에서 ETW위원회의 최종보고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테마는 총회에 다녀온 인사들뿐이 아니라 국내의 전문가, 정책담당자, 관련기관 종사자

WEC 마드리드총회에 한국의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安秉華회장(한전사장)은 지난 9月21日(현지시간) 아침 일찍 마드리드市内「멜라이 마드리드」호텔에서 25명의 대표단을 소집, 조찬간담회를 베푼 자리에서 “지금까지 WEC에의 참여가 피동적이며 총회등 참석도 즉흥적인 일면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安秉華회장은 앞으로는 사전준비를 더욱 치밀히 하기 위해 시간여유를 가지고 기본방향을 설정한 뒤 조직적인 준비를 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될수 있도록 회원사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는데 대표단 전원이 전폭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安秉華회장은 「95년 16차 WEC 東京총회」는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국제화 자유개방화시대에 한국의 位相을

WEC 총회 勿失好機 인식 國益위해 국제회의 最大活用해야

너지協사무국에서부터 국제감각이 낙후돼있는 것이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의 한 유력일간지에 “전문가보다 일반론자를 선호함으로써 순환보직등이 관행화된 인사관리……(중략) 최근의 어떤 자원협력회담에 참석한 상대국 대표는 한국의 얼굴(대표)은 너무 자주 바뀐다”고 의아해했다는 대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의 共有를 가로막고 무책임을 조장하며 장기적 대응 자세를 흐트러놓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도 백번 옳은 말이다.

WEC를 알차게 이용하려면 과건회원 구성문제, 활동영역을 넓히는 문제, WEC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을만한 훌륭한 논문의 제출문제, 그런 논문의 생산을 위한 지원문제, WEC에 나가기 전의 주도면밀한 사전준비회의등 사전에 점검하고 협조해야 할일이 한둘이 아닌데 이제까지 이런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것으로 그치고마는 일과성행사가 돼서는 안될텐데 이제까지 그 과급효과가 그리 크다고 할수도 없다.

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분석하는 진지한 토론의 마당이 마련되고 도출된 결론들을 정책당국에 수용하도록 건의하는 적극적인 사후의 재점검작업이 필요한 것등이다.

반성과 새로운 출발

어떤 사물의 시작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며 대개 출발당시는 큰 의욕을 보이 나 시일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경향이 있어왔다. “創業보다 守成이 어렵다”는 옛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한국에너지협의회 및 WEC국내위원회도 당초에는 에너지계의 발전과 국가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해보고자 가치를 높이 올렸던 것인데 지금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벼간 현실을 안고 있다.

한편에서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인류의 존망을 좌우하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제기구인 상부구조-WEC는 점점 그 역할과 기여도가 증대돼가는 형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번 WEC15차 총회를 계기로 WEC와 에너지협의회에 대한 발전적인식이 싹터가고 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다.



높이며 아울러 에너지産業의 발전과 기술개발, 그리고 關聯産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지함으로써 에너지협의회의活性化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한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도 금세기안에는 벌써 다 예약되었으므로 안되지만 21세기초에는 아마도 민족이 통일된 축복속에서 WEC 총회를 개최하여 國威를 宣揚할 수 있는 기회를 맞기를 고대한다.